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와 행복을!

5월 1일 차세대 '어린이주일' 행사 ... 선물 나눔, 놀이기구
5월 2일 '부모맞춤전도집회', 5월 7~8일 '아버지주일' 행사
5월 14~15일 '입양위탁행사' ... 사회선교부 제이홈사역팀 소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와 행복을 전하는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날(11일), 스승의날(15일), 성년의날(16일), 부부의날(21일) 등 행복한 기념일이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뜻깊은 기념행사를 한다. 5월 1일(주일)은 어린이주일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부서별(예수님의꿈아이, 꿈이지라는땅, 파워웨이브)로 간식과 선물을 나눠준다. 동빙고 근린공원에서는 다양한 놀이기구(바이킹, 에어바운스, 회전그네, 기차)가 설치된다. 양재 차세대는 버블공연(비누거품, 풍선아트)과 영화 '레미: 집 없는 아이'를 관람한다(강남 메가박스).

5월 2일(월)에는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맞춤전도집회 '윤희주와 함께하는 행복드림 콘서트' (이하 행복드림 콘서트)

가 막으른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할 절호의 기회다. 5월 2일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행복드림 콘서트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에는 가수 윤희주, 장로, 이무송 집사, 소프라노 홍혜란 등이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5월 7일(토)과 8일(주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존중을 표현할 예정이다. 토요일, 일요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준다.

5월 14일(토), 15일(주일)은 입양위탁행사를 한다.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사역팀(입양위탁 커뮤니티)에서 입양위탁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사역팀 및 관련 기관을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해 동빙고 근린공원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땅끝까지 더멋진세상!

5월 7일과 8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
정기후원 약정서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

NGO 더멋진세상이 5월 7일과 8일 정기후원 약정식을 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소속 국제개발 NGO다. 지구촌의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인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현재 25개국에서 '더멋진마을조성사업', '다음세대희망심기', '취약계층생명살리기', '긴급구호 및 난민 사역' 등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던 메마른 사막에 딸기가 맺히는 기적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손끝에서 나온다"면서 "땅끝까지 더멋진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몰도바 스테우니체교회(한요안 선교사 운영)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스테우니체교회에서는 유적지 견학, 김밥 만들기 등 난민들의 일상을 다채롭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현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으로 휴대용 가스버너 240개, 가스통 1천 개, 의약품 2천 달러 상당, 발전기 6개를 전달했다. 고려인계 우크라이나 난민 19명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

후원: 1002-702-002535(우리은행)

문의: 02-2271-224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5월 7일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

서빙고, 양재 시작으로 5월 중 전 캠퍼스 진행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달려라풍당' 캠페인이 '스페셜라이딩'으로 포문을 연다. 참가자들은 5월 7일(토) 오전 10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공원과 10시 40분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 집결하면 된다.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에서는 이촌한강공원에서 양재천까지 17km를 걷기, 달리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참가자들이 설정한 거리만큼 운동하면 된다. 달려라풍당 스페셜라이딩은 5월 한 달 동안 각 캠퍼스별로 진행된다. 스페셜라이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캠퍼스에 설치된 홍보데스크에서 CGNTV 임직원들이 설명을 해준다(관련 16면 광고).

'달려라풍당'은 운동한 만큼 후원하는 캠페

인이다.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거리측정이 가능한 운동을 하고 그 거리만큼 후원하면 된다. 후원금은 주일학교 예배 운영을 돕는 '풍당주일학교'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풍당주일학교는 전국 200개 교회에 주일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달려라풍당 참가신청은 5월 22일(일)까지 할 수 있다. '네이버 폼'과 기부플랫폼 '체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부플랫폼 '체리' 앱 회원가입을 한 다음 캠페인 참가신청을 하면 신청접수부터 운동별 기록측정, 랭킹 확인, 인증샷 공유까지 할 수 있다.

문의: 02-796-2243

생명나눔의 기적 "혈액, 아직도 부족하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Pray for Ukraine'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크라이나로 다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크라이나로 다시 시집을 갑니다. 저를 후원해주시는 친정 교회 권사님들이 친정어머니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필자의 파송예배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새 땅과의 결혼식과 같았다. 그렇게 2004년 6월, 5살과 3살이 된 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처음 왔다. 현지 언어가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현지 적응해야 한다고 유치원에 데려다주었다. 아침에 아이들이 유치원 마당에 모여 반별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중 검은 머리카락 두 명이 필자의 딸들이었다. 아이들이 노란 머리카락으로 염색해달라고 했을 때도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어했는지 엄마인 필자는 미처 몰랐다. 막내아들이 유치원 반에 들어가자마자 벽 구석에 하루종일 앉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현지 유치원에 다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필자는 딸, 딸, 딸, 아들의 엄마로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아이들과 여성을 위하는 나라인데, 아시아인이 드문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많았다. 당연히 아이들은 그런 시선을 너무 싫어했다. 중국인이라고 놀려대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하러 현지 어린이병원에 갔을 때 일이다. 안과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다 뜨지 않았다고 수술해야 하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우리는 그날 의사에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아시아인은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시아 아기를 본 적이 없는 의사에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처럼 필자가 살아온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땅의 역사와 계절, 기후에 따라 다른 점이 많다.

기도의 방패 쌓아주기를

우크라이나에서 필자는 교회와 신학교, 개척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생명의 길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현지인들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거리두기와 어르신들의 왕래가 어려워져서 현재는 5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은혜와진리’ 신학교는 작년에 22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졸업생을 600여 명이나 배출했다. 우리는 신학교의 학생 한 명이 교회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졸업하고 사명을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CIS 15개국의 복음화와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 신학교에서는 복음의 전사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으며, 졸업한 학생들이 시작하는 개척 교회를 돕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가 많은 학생에게 인기 있는 언어가



되었고,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크리스천을 위한 한국어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알려졌지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그래도 이번 전쟁으로 많은 사람에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한국보다 6배나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밀과 감자가 맛있는 나라이고, 한국처럼 많은 침략을 받아 아픔도 많지만 정도 많은 나라이다.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필자는 외교법에 의해 교회와 신학교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게 되었다. 한 달 후쯤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옷 몇 벌과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책 몇 권만 가지고 주변국인 불가리아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곳에 온 지 벌써 4주가 지났다. 아침이 되면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휴대전화 알림이 가득 찬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교인들, 그리고 학생들과 연락하며 소식을 듣고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서쪽에서 독일에 도착했다는 교인 소식도 있다.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만 국경을 넘고 남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쟁이 무섭지만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다는 학생들도 있다. 음식이 없어 하루 한 끼만 먹는

다는 학생의 소식도 들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수도 키이우의 북쪽 오블론에 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건물 지하실이나 지하철 방공호로 대피한다.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길교회를 교인들에게 피난처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에 사는 분들까지 대략 40여 명 정도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생활하는 중이다. 그들은 모아든 식료품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함께할 수 없는 필자를 위로하였다. 이들이 먹을 식료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있기에 필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교회가 속해있는 현지 교단을 통해 전쟁으로 고통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고 있다.

건물과 인명 피해가 막심하다. 그중에서도 2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폭격을 당하였다. 병원도 많이 파괴되고 물자도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지 교단을 통해 돕는 것 외에 전쟁이 끝난 후 현장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기를, 우크라이나를 위해 꼭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홍재현 선교사(PCK)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제목

1.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도록,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2. 지도자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주시고, 지하철 방공호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4. 난민들을 위해: 삶의 기반을 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지켜주소서.
5.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6.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피난 중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현재 사역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비전과 협력이 잘 연결되게 하소서.
7.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며: 전쟁 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재건을 통한 일상생활의 회복과 우크라이나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물질 후원이 연결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통로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하나은행 174-910024-87105
(예금주: 우크라이나대사관)
· 기아대책: 02-544-9544
· 대한적십자: 1577-8179
· NGO 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1-52905(예금주: 사)더멋진세상

*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한국선교KMQ에서 발행한 <PRAY for UKRAINE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요청> 책자에 실린 글을 전재했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 주일이 부활주일 이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기쁨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눠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17:13).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보여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이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수십 년 연봉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평생 벌지 못하는 액수의 가치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삶, 소명, 인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 무엇인가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여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에 물든 나머지 뒤의 메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벌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무엇인가 노력하든 손실이 있어도 책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C.S.루이스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의 고백들은 도망 다닐 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

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은 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시 9:2).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시 32:11).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도전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만 있

기를 원하실까요?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동시에 친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행복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곧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2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가 된 사람들은 마음이 기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나치게 행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4절).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입니

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3절).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다윗은 그 시대 역을 하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모든 사람의 애환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 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5~6절).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몫이 아름답고 좋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깃이 아름답고 좋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몫이 어떻게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축복 속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몫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게 주신 땅이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청교도 윌리엄 로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란 비어있는 황금잔을 가지고 갈증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황금잔을 가지고 아무리 마셔 봐야 목마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넓은 땅을 가져도 아름답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곳이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말씀 먹고 마시는 차세대의 '사순절 성경쓰기'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확진됐는데도 사순절 성경쓰기 끝까지 한 박시후 학생



친구들!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 금식, 선행 등을 행하는 기간이에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은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많은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쓰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다고 하네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사순절 성경쓰기를 끝까지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박시후 학생(서빙고 꿈땅 소년1부, 초등 5학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은 사순절 성경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말씀 쓰는 게 정말 재미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후 학생도 처음에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사순절 성경쓰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숙제처럼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귀찮기도 하고, 글씨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았던 사순절 성경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 있어졌대요.

“매일 성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알고 있던 이야기들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됐고요. 재미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썼어요.”

시후 학생은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네요.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말하고 배신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라면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신기하고 기억에 남아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감사했어요. 저도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시후 학생이 열심히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던 중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어요.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머리도 아팠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끝까지 썼대요.

“사순절 성경쓰기를 끝까지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아파도 끝까지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마지막 2일 분량은 몰아서 쓰기도 했어요(웃음).”

시후 학생이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아파보니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이랑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QUIZ

출제 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4월 26일자
본문(말라기 2장 13~16절)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을 잘 지키고 ()를 저버리지 말라’(말 2:16).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비교 대신 격려! 비판 대신 칭찬!



한은경 권사
(두란노 어머니학교 이사장)

아이들은 쉽게 상처받고 아파한다. 가장 큰 상처는 남과 비교당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자녀에게 “너는 어딘가 부족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지 않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열등감에 빠져들고 심한 분노를 느낀다.

아이들의 마음은 하얀 종이와 같다. 부모, 특히 아버지가 그 종이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자화상이 달라진다. 격려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비난하는 말과 비교하는 말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든다. 아이는 아버지가 비춰주는 거울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 아이의 인격은 한마디로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중요한 타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잘 자란다.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다. “네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낫다”고 계속 비교해서 말하면 아이는 늘 경쟁심 속에서 살게 되고, 강박 관념에 빠질 수 있다. 여유를 즐길 줄 모르는 삶을 살기 쉽고,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 남의 이름을 이해할 줄 모르고, 남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높이든 낮추든 모두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좋은 비교도 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 넌 아빠 아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암만 공부를 잘하면 뭐하니. 아빠는 그래도 네가 더 믿음직하다” 이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존재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이어서 매우 유익하다. 남들보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시켜 줘야 한다. 비교는 절대 올바른 양육 방법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비교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서로의 사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말고, 대신 아이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남과의 비교를 곧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교당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래서 비교 당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교한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상처를 준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공동체의 하나 됨을 깨고 거스른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

자녀가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백해무익하다. 비교 의식 속에서 자란 아이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기 어렵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기 어렵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기 어렵다. 비교 대신 격려해야 한다. 비판 대신 칭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다.



20. 서로 사랑(1)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친구들아, 우리 꼭 같이 헌혈하자!”

차세대도 생명나눔 ... 최예은, 김민준 학생 헌혈 캠페인 동참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소방서, 경찰서, 은행, 대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 헌혈이 줄을 잇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심각한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현재까지 성도 4,759명이 헌혈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도 7천7백만 원가량 모금했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은 6월 5일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진다.

헌혈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귀한 발걸음에 차세대도 함께하고 있다. 최예은 학생(인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과 김민준 학생(부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두 학생은 “헌혈하면서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생명 나눔’이라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헌혈 조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나이’다.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전혈헌혈은 320mL와 400mL를 채혈하는데 320mL는 만 16세~69세까지, 400mL는 만 17세~69세까지 할 수 있다. 성분채혈기를 이용해서 필요성분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돌려주는 성분헌혈은 만 17세~69세까지 할 수 있다.

최예은 학생(인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학교 2학년)은 지난 1월 헌혈할 수 있는



차세대 최예은 학생(인천 파워웨이브, 왼쪽)과 김민준 학생(부천 파워웨이브, 오른쪽)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다.



나이가 되자마자 헌혈의 집을 찾았다. 3주 전에는 두 번째 헌혈했다.

“아빠가 헌혈하러 가실 때 따라가곤 했는데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 제 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막상 해 보니까 진짜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헌혈 마치고 두 달 지나자마자 다시 헌혈의 집을 찾았어요.”

최예은 학생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영향이 컸다. 할아버지부터 큰아버지, 아버지까지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아빠는 물론이고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도 헌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꾸준히 헌혈하시고, 헌혈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나 재능으로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몸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누워본 헌혈 침대는 긴장한 탓인지 딱딱했고 불편했다. 그래도 헌혈팩에 채워지는 피를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안 무서웠다면 거짓말이고요(웃음).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 피가 헌혈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뿌듯한 마음이 커졌어요. 헌혈팩에 채워진 제 피가 다른 사람을 작게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최예은 학생이 헌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헌혈은 ‘이웃을 향한 마음’을 배우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의 작은 실천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어요. 헌혈 기념품과 건강검진 기회 등은 덤으로 따라오는 선물이고요.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정도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더 많은 친구가 헌혈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김민준 학생(부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학교 3학년)은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서 생애 두 번째 헌혈했다. 지난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헌혈과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참여했다.

“작년에 학교에 헌혈 버스가 와서 난생처음 헌혈을 했어요. 그때는 기념품을 준다고 해서 별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호기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빠가 교회에서 헌혈 캠페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랑 함께 헌혈을 준비하면서 헌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념품을 받기 위한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김민준 학생도 헌혈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남을 도울 수 있음’을 꼽았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웃과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고백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값진 경험을 하는 게 헌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나눌 때 얻는 기쁨은 학교나 교회, 가정에서 지식으로 배울 수 없으니까 더욱 값진 것 같아요.”

김민준 학생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에게 함께 헌혈할 것을 권유했다.

“당연히 헌혈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헌혈하고 나오면서 다음 헌혈도 예약해뒀고요.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건강한 피를 가진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친구들아, 우리 꼭 같이 헌혈하자!”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너무 오랜만에 하는 헌혈이네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한발 다가가는 저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박승원 성도

· 안 그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려던 차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생명나눔의 기적 덕분에 쉽게 용기 냈네요. 하고 나니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 최다은 성도

· 값진 사랑의 실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유성준 성도

·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작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사무엘 성도

· 피로 얼룩진 세상에서 다시 피로 하나 되는 세상까지.

/ 임형준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 구경용 성도

·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도 드릴 수 있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 이명지 성도

·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에 감사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 김홍수 성도

· 나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작은 실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은옥 성도

· 올 1월 14일 헌혈을 하였는데 ‘혈액 절대 부족’이라고 해서 다시 생명나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크게 사용 되어지길 원합니다.

/ 김봉주 성도

· 잠깐의 시간이지만 내 몸에서 피가 나가는 동안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

합니다.

/ 이승철 성도

·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 정운택 성도

· 건강 주셔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 박해진 성도

· 주기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 김세윤 성도

· 생명나눔 캠페인 참여합니다!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 이예찬 성도

“제2의 도약과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학교 신임 이사장 최성완 장로의 비전과 포부

(사)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이하 아버지학교) 새 리더십이 세워졌다. 1대 이사장故 하용조 목사, 2대 이철 장로, 3대 김성묵 장로에 이어 4대 최성완 장로(이수공동체)가 취임했다. 최성완 장로는 아버지학교 세계화에 크게 공헌했다. 해외에서 아버지학교가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4월 21일(목) 제2의 도약과 부흥을 꿈꾸는 아버지학교 최성완 신임 이사장을 만났다. 최성완 장로는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 소년 같은 해맑은 웃음을 가진 중년의 멋진 신사다. 조곤조곤, 부드러운 말투에서 굳건한 다짐과 포부가 엿보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1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영어 아버지학교에서 최성완 장로가 현지인 무당을 격려하고 있다.

아버지학교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성완 장로는 국제통(國際通)이다.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으로 32년 근무했다는 이력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는 ‘영어 아버지학교’를 만들고 확장한 장본인이다.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아버지학교가 전파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성완 장로에게 신임 이사장 취임 축하와 더불어 소감을 여쭙다.

“1999년 아버지학교를 접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역대 이사장님들이 기라성 같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라 정말 큰 부담이 되고, 부족한 제가 감히 이 큰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떨렸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순종의 용기를 썼습니다. 떡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고, 저는 그 떡을 잘라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에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가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빛진 자이자, 20점짜리 아버지였다

최성완 장로가 아버지학교를 처음 만난 것은 1999년 12월이었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그에게 아내가 아버지학교를 추천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제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100점은 안 되더라도 80점은 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해준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 나머지 20점을 채워서 100점짜리 아버지가 되자는 마음도 있었지요.”

술, 담배 안 하고 번듯한 직장애, 교회도 잘 다니는 자신에게는 아버지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아버지학교에서 최성완 장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학교 첫날 조원들끼리 아버지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원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제야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고...”

최성완 장로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남성들 속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애정의 눈빛과 미소로 바라봐주시는 분이셨다. 이래라저래라 다그치지 않으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니?”라며 항상 아들의 의견을

물어 주시는 분이셨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 “된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항상 기다려주는 분이셨다. 그런데 아버지학교에서 만난 남성들은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최성완 장로는 자신이 빛진 자임을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빛진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빛진 자(생명을 주신 아버지), 축복에 빛진 자(여러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빛진 자라는 것을 아버지학교에서 깨달았습니다. 빛진 자로서 나누고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아버지학교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80점이 아니라 20점짜리 아버지였음을 깨달았다.

“제가 약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20점이 될까 말까 한 아버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학교를 추천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사춘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아버지가 못 됐을 것입니다.”

어느 날, 김성묵 장로가 최성완 장로에게 ‘영어 아버지학교’를 만들어보라고 권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김성묵 장로님에게 가정 사역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묵 장로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영어 아버지학교를 만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니까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웃음).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일인지,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어 아버지학교는 해외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꼭 필요했다. 한국어로 된 교재와 강의(통역)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 영어 아버지학교가 인도 ‘첸나이’라는 도시에서 열렸다. 그날 이후 영어 아버지학교가 날개를 단 듯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인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갔다. 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영어 아버지학교가 소개되었다.

최성완 장로는 해외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잊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인도 ‘나가랜드’라는 곳에서 아버지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인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도시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를 했는데 세족식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만큼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대로 했습

니다. 처음에는 아내들이 깔깔대기도 하고, 축스러워하기도 하다가 남편들이 발을 씻기고부터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또 한번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아버지학교를 했는데 무당이 참여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학교에서 지난 삶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난잡하게 살았다며 주술 도구를 불태우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외 선교와 함께 가는 아버지학교 사회적 멘토 역할 하는 아버지학교

최성완 장로가 아버지학교 이사장이라는 큰 직분을 감당하면서 포부와 비전을 밝혔다.

“아버지학교는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했고, 온누리교회에 뿌리를 둔 성령 운동입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와 함께 가는 아버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이 꼭 아버지학교를 경험하고 개인의 가정회복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역과 전도의 좋은 도구로 아버지학교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NGO 더멋진세상, SWIM 등)에서도 영어 아버지학교를 개최해서 현지인 선교와 가정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공동체 해외 아웃리치를 갈 때도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공동체에서는 괌 아버지학교를, 강남B 공동체에서는 이라크 아버지학교(온라인)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학교가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서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버지 역할에도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는 아이들(보육원, 보호종료아동 등)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회적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와 가정, 교회와 사회가 오롯이 서도록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학교의 수많은 현장에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학교운동이 계속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도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학교 이사장이라는 큰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잘 빚어가며 사용하시기를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학교가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국내외 많은 동역자와 함께 아버지학교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행기 좀 가져다 주세요.”

최윤숙 사모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잠에서 깬 민성기 선교사의 첫 마디에 생기가 묻어났다. 폐 이식과 2번의 심정지를 겪고 퇴원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보행기로 문턱을 넘어 거실로 나오는 민성기 선교사의 얼굴에도 생기가 가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회고하던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 부부가 “매일 은혜고, 매일 기적”이라며 “이 모든 기적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매일 은혜고, 매일 기적입니다”

폐 이식과 2번의 심정지 극복한 민성기 선교사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 부부는 원래 중국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하나님이 스리랑카를 거쳐 부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다.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는 캄보디아의 어느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로서 학원선교와 현지인 목회자 자녀들을 돌보는 학사 사역을 했었다.

“하나님이 제 꿈에 바다가 공중에 떠 있는 집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前 선교지의 집들은 전혀 다른 모양이었는데 우기가 긴 캄보디아에 와보니까 꿈에서 본 바다가 공중에 떠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마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보내신 곳이 캄보디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성기 선교사가 당시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회고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박한 대우를 받습니다. 캄보디아가 힌두권 불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몇 개 없는 교회는 천대받고 목회자들과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목회자들이 마을에서 어깨를 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목회자 자녀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1등 하던 목회자 자녀들이 막상 도시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수록 더 노력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프놈펜대학 장학생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목회자 자녀들이 도시 학교에서도 1등을 했다.

망고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작된 예배 그리고 교회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 부부의 캄보디아 생활 2년이 지나면서 사역에 변화가 생겼다. 학원사역을 그만두고 현지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학사에서 살림을 도와주던 톨 아주머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한다고 해서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신학을 마치고 자기 마을에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서 교회를 열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침 학원사역을 그만두려던 찰나였기에 톨 아주머니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엄뎡마을에 정탐을 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뎡마을은 단기선교팀들이 간단한 구제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이벤트가 많이 하는 곳이었다. 수도에서 불과 한

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데다 척박한 환경이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다. 톨 아주머니가 생각했던 성도들은 구제를 베풀 때만 얼굴을 보이는 주민들이었다.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 부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척박한 엄뎡마을 망고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성인들은 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학사에서 생활하던 목회자 자녀들도 함께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었다. 13여 년이 지난 지금, 코흘리개 아이들이 장성해서 엄뎡마을에 있는 ‘엄뎡교회’를 이끌고 있다. 주변 마을에도 교회가 7개나 생겼다. 엄뎡교회는 캄보디아에서 손에 꼽히는 선교사가 개척하고 자립한 교회다. 엄뎡교회 성도들은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개월 한국에 머무는 지금도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있다.

갑기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비를 맞으면서 교회 마당을 정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리다 말겠지 했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식료품도 별로 없고 약도 없어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병원비가 1명당 하루 600불 수준이라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가 9월 17일 캄보디아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최윤숙 선교사는 몸을 가눌 수 있었지만, 민성기 선교사는 호흡이 조금씩 어려워졌다. 불과 며칠 만에 산소포화도가 너무 낮아져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온누리교회와 두란노선교회, CMN(의료선교팀)은 민성기 선교사를 한국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했다. 9월 24일 에어엠블런스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민성기 선교사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 몇 차례 검사를 받고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가 진행 중이라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에크모(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에 넣어주는 기기)를 달았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이 시작됐다.

“에크모를 오래 사용하면 그만큼 화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3개월을 에크모를 달고 마약성 진통제로 의식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 공여자를 기다리면서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그 힘든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살이라도 떼주고 싶은 마음에 온 가족이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생체이식은 불법이라 가족들의 폐를 민성기 선교사에게 이식할 수는 없었다. 1월 11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폐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을 마친 집도의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사례가 두 분이 있었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남편 몸에 달려있던 수십 개의 바늘과 검사 장비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 1월 31일과 2월 2일 36시간 간격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 온 가족이 모여 민성기 선교사의 천국 환송을 준비할 정도였다. 기적처럼 심정지를 극복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를 압박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두 번의 심정지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2월 24일 민성기 선교사가 일반실로 병실을 옮겼다.

“이 은혜 평생 복음 전하며 갚겠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민성기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다.

“결국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단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병실

에 누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민성기 선교사에게 또다시 죽음이 다가왔다. 3월 22일 민성기 선교사의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당시 중환자실에 온 민성기 선교사를 본 의료진들이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의료진들이 제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 매일 간호사들이 의식과 기억력을 확인하는데 저는 간호사님들이 오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제 물리치료를 해주신 물리치료사님께도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폐 이식 수술과 2차례 심정지가 믿기지 않을 만큼 민성기 선교사의 회복이 빠르다. 민성기 선교사는 4월 15일 퇴원했다. 민성기 선교사의 목소리와 몸짓에 생명력이 가득하다. 민성기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민성기 선교사와 최윤숙 선교사는 이 모든 기적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이제는 보행기 없이도 걸을 수 있고, 혼자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은혜고, 매일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은혜 평생 복음 전하며 갚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왜 교회가 나랏법을 반대해?!”

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명예비인
후과 원장, 의료윤리
연구회 회장)

온누리교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5조 폐지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웬지 나랏법을 반대하는 일에 내 이름을 적는 것이 꺼림칙하기

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에서 정치 운동을 하는 것 같아 덜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 이기에 이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문제가 되는 제5조의 내용이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중략)”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현재 반대 서명이 진행되는 것은 서울시 지방 의회가 의결한 자치 규범 중 하나인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다.

대한민국의 법률 위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률에 위임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다. 또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학생과 교사는 물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다. 혐오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미명으로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고, 2012년 서울시에서도 제정되었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7곳이 시행하고 있다(서울, 경기, 광주, 전북,



왜 나랏법에 시민단체도 아닌 교회가 나서야 하는 걸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알리며 서명하는 일이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이다.

충남, 제주, 인천). 주된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및 휴식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존엄과 자유와 행복인데 조례 시행 이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쏟아져 나왔다. 조례 때문에 가정과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단 학생의 권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 훈육에 어려움이 생겼다. 체벌이 전면 금지되고(제6조), 복장이나 용모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제12조). 교사들이 정당한 학생지도를 기피하고, 교권의 붕괴가 일어났다. 교권의 붕괴는 곧 학력 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性)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제5조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때문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소위 ‘동성애’를 의미한다. 동성애로 번역된 homosexuality는 단순히 동성 간의 사랑(愛)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동성 간(homo) 성행위(sex)를 뜻한다. 조례에 따르면 동성 성행위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성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작게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인정해야 하고, 크게는 남녀 이외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 제3의 성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바뀌는 성, 조금 남자이면서 많이 여자인 성, 남녀 반반인 성, 아무것도 아닌 무성(無性) 등 다양하다. 학교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성별이 혼란스럽다면 성전환수술을 하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조항이다.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런 교육을 법제화시킨 외국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2010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9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했다(2010년 97명, 2018년 2,519명). ‘CBNNEWS.COM’은 2018년 기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들이 40배나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자가 되기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안타까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후회하는 트랜스젠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대개 15세 즈음 최대 크기로 성장한다. 겉으로는 어른과 비슷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미숙하다.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이 부족하다. 특히 고차원적인 판단이나 언어,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은 가장 늦게 이뤄진다. 24세가 되어야 성인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된다. 청소년기의 뇌는 전두엽이 비록 미숙하지만, 뇌세포가 많고 활발해서 빨리 배우고 잘 기억하며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결망이 채 완성되지 않아 쉽게 산만해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청소년기 뇌의 특징 때문에 아이들은 성(性), 술, 담배 등의 호기심을 직접 시험하려 하고, 충동적인 행

동으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성인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온 사회가 노력하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동성 간 성행위나 트랜스젠더 같은 급진적인 성교육을 받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되어버렸다.

학교는 미숙한 아이들에게 행동 일탈의 부당성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성윤리에 바탕을 두고 이성을 존중하는 인격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5조를 폐지해야 남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청년으로 키울 수 있다.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을까? ‘주민조례청구권’에 따라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자격은 18세 이상 서울시 주민이면 된다. 청구권을 얻기 위한 요건은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의 0.5%인 2만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나랏법에 시민단체도 아닌 교회가 나서야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때문이다. 실상 조례 폐지 요구는 단지 교육 문제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의 근간인 가정을 해체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나라의 정치와 교육,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임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영역에 교회가 나서서 것이 마땅하다. 복음주의 철학자이자 목사 프랜시스 셰퍼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 할지라도 공산국가와 다름없는 독재국가로 변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왜곡된 차별금지 조항이 폐기되지 않으면 2006년부터 온 교회가 혼신을 다해 막아온 차별금지법안도 쉽게 제정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큰 이데올로기의 독재 국가 아래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알리며 서명하는 일이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이다. 지금 힘을 모아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해야 한다.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온라인서명

<https://juminegov.go.kr>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 찾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수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형제님들을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 제 마음에 든 형제는 이미 여자 친구가 있거나 결혼했습니다. 소개팅도 해봤는데 조건이 좋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있으면 다른 조건이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제 기준이 높은 걸까요?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데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엡 5:25)라고 말했다. 나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희생도 해줄 수 있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다 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다.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에 대한 직업, 직장, 학벌, 외모, 가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내게 행복한 가정과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남성을 찾게 된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다.

‘돈은 얼마나 오래 갈까?, 사회적 지위는 얼마나 오래 갈까?, 외모는 얼마나 오래 갈까?’ 보이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나는 8년 전 회사를 설립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크게 성공해서 외국 회사에 매각했던 정밀화학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너무 잘 될 것을 확신했는데 해외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공장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이 내 상황을 염려했고, 다른 사업체까지 어려움으로 들어갔다. 내가 평생 하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결정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아내는 나

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줬다. 우리 부부는 진정으로 회개기도를 했다. 아내가 어느 날 밤 내게 와서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모나는 거야?”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아내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내 평생 다시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만약 기도하는 아내가 없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무서운 시련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매년 50% 성장과 수익을 내는 회사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한 최악의 결정도 최고의 결정으로 바뀌어준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부부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가정은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성화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결혼 이후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믿음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는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에 나오는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죽으면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찾아보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배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문영기 장로
(W청년부 멘토)

***‘라떼는 말이야’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대학청년부 멘토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조언과 위로를 건네주는 코너이다. 고민이나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협상과 타협의 기술

육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시기는 부부 모두 심신이 힘든 시간이다.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심적으로도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을 느끼곤 하는 시기가 되기 쉽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육아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할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헌신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넉넉히 확보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육아를 담당하는 양육자의 현실이다. 심신의 여유 없음이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몸이 힘들면 당연히 마음도 힘들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당신은 육아를 더 감당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힘든 나를 배려하지 않느냐?”라면서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한다. 육아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부관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일수록 부부는 서로 더 이해하고 도우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 항해하는 배는 크고 작은 파도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된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을 잘 이겨낼수록 부부는 더욱 신뢰가 두터운 관계로 성장한다.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협상과 타협의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부부가 협상 과정에서 견지해야 하는 마음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다. 과정과 단계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표 혹은 합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협상 과정에서 완고한 모습을 보인다면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된다. 부부 관계는 이성적인 관계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감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목적을 이루었더라도 과정에서 상심이 났다면 바람직한 협상 과정이 아닐 것이다.

부부가 타협을 이루는 협상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경청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부부 사이의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주로 “나의 배우자는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배우자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의문과 섭섭함이 시작되면 견집할 수 없이 상대에 대한 감정이 미움으로 발전한다. 상대와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마주 앉아서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도 싫어진다. 이럴 때 부부는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싫고, 상대방에게 냉담해지기 쉽다. 힘들겠지만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부부 협상 테이블로 나갈 필요가 있다. 부부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왔을 때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서로가 기대한다면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경청하는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다면 적극적인

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물론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느낌과 기대, 기대의 좌절, 어려움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일방적으로 모든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갈등만 생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자세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하지만 힘들고 갈등이 격해지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인내와 성숙이 필요하다. 최소한 본논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는 폭언 수준의 말은 하지 않겠다는 서로의 다짐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부부 협상 테이블이어야 한다. 간혹 부부가 육아와 가사일로 갈등이 표출될 때 한쪽은 극단적으로 회피하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다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패턴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축적되었던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배우자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섭섭함이 마음에 남아있다.

회피와 다그치는 패턴으로 부부의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부부가 기대하는 협상

과 타협도 이루기 어렵다. 갈등상황일수록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과정과 종결은 부부 어느 한편의 의견과 주장이 늘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 아니다. 때로 나에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합의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과정이 부부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부부는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타협했다면 타협한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창 13:1~18).

나눔: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협상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은 어디입니까?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나는 그 길을 걸어가련다!



〈깨어진 그릇〉
김태훈 저 | 규장 | 12,000원

공동체 성도님에게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본인께서 늘 중보기도하고 있는 한 선교 사님의 글이라며 주셨다. 책장을 넘기며 보고 있는데 마치 불덩이 같은 책이었다. 책 속에 활자로 담긴 저자의 열정이 활자를 뒤흔겨 나와 거룩한 부담의 화살촉이 되어서 읽는 내내 내 마음에 꽃혔다. 동시에 이 책을

읽는 내내 감정적 통증을 느꼈다. 현재 처해 있는 저자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러움이였다.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자의 삶의 궤적이 너무 부러웠다. 응당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과 그분의 삶이 교차하며 느끼는 감정이였다.

오늘 소개할 책 〈깨어진 그릇〉은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엘리트 길을 걸었던 김태훈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다. 이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수단으로 삼아 길을 걷고 계신 분의 고백이다.

책을 읽을 때나 음악을 들을 때, 심지어 영화를 볼 때도 나도 모르게 몰두하는 테마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다. 그것은 ‘길’이다. 책장이라고 하기에도 거창한 작은 책장 한쪽에 유난히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많다. 염두에 두고 구입한 것은 아니었는데 사고 보니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었다. 늘 그런 식이다. 아직도 찬양을 들을 때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에 더욱 마음이 끌린다.

나는 왜 이렇게 길에 집착했는가? 인생의 길을 빨리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인생의 길을 빨리 찾아야 했을 만큼 당시 삶이 너무 고되고 형편없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없이 헤매던 시간 속에 나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에야 비로소 나의 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로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중요한 시류다.

이 책을 읽으며 무엇보다 은혜가 되었고 반가웠던 것은 예수 없이 어리석게 찾아 헤맸던 길에 대한 저자의 명확한 믿음이였다. 길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불편과 불행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불편과 불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불편을 불행으로 여긴다. 그러나 불편은 불행이 아니다. 불편을 통해 우리는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김태훈 선교사님이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 다니던 시절 어느 강의 과제로 제출했던 묘비명에서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육체의 불편을 벗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의 불편은 그가 사랑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가 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는 내가 십수 년 몰두했던 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담겨 있다.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다. 그것이 길이 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면 불

편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불편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이다. 김태훈 선교사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보려 한다.

은혜 되었던 또 다른 내용은 김태훈 선교사님의 지금 삶이 젊은 날 뜨겁게 예배했던 예배의 소산임을 발견한 것이다. 일심(undivided heart)과 전심(all my heart)을 다한 예배가 사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는 ‘무모한 삶’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그 무모한 삶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의 몸은 쇠약해지고 있어도 그것과 반비례하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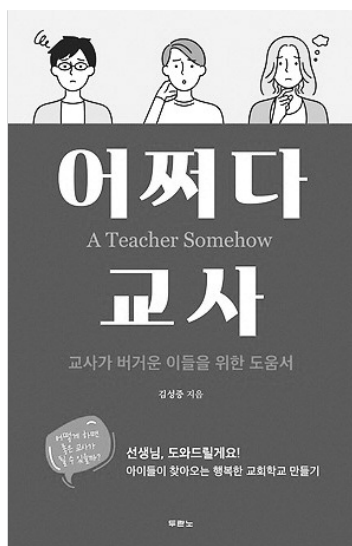
‘무모함’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 불편함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한 사람의 열정이라는 캔버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련다.



이길탁 목사
(강남D공동체)

두란노 신간

차세대 교사가 버거운 이들을 위한 도움서



〈어쩌다 교사〉
김성중 저 | 두란노 | 14,000원

사이고 싶다’, ‘아무튼,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를 주제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교육 방법을 전수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교사, 그럼에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싶은 교사, 교사의 본질과 기본기를 다시 세우고 싶은 교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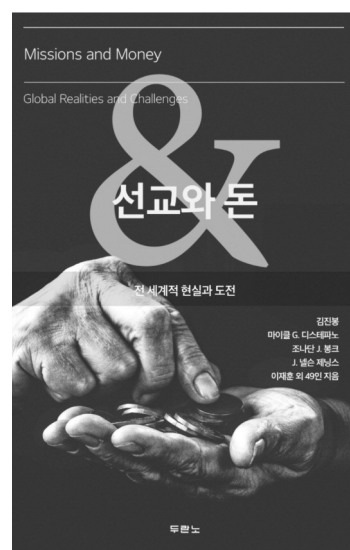
“목사님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유독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부서가 있다. 교회학교다.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줄어드는 학생의 수, 대폭 감소하는 교육부서 재정, 이따금 들려오는 학부모들의 불만까지 교사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교사다!”라며 지친 몸을 이끌고 차세대 예배당에 몸을 이끄는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버겁지만 많은 사역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킨다. 그들이 있기에 아직 교회학교에 희망이 있다.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틔우는 교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으며 자란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 나왔다. 〈어쩌다 교사〉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 방법과 실천 매뉴얼이 담긴 교사들을 위한 안내서다. ‘어쩌다, 교사: 나는 좋은 교사였을까?’, ‘그럼에도, 교사: 이왕이면 좋은 교

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생각



〈선교와 돈〉
김진봉 외 53인 저 | 두란노
| 30,000원

회와 기관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이 기뻐한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할 때는 지도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화중이 기뻐한다. 이것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린 일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돈과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모든 선교사, 선교단체, 교회가 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이다. 2021년 KGMLF 선교리더십포럼에서 국내외 선교리더들이 ‘선교와 돈’을 주제로 사례 연구, 워크숍, 간증 등을 나눴다. 선교사, 행정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냈다. 그 이야기를 엮어 〈선교와 돈〉을 발간했다.

〈선교와 돈〉에서는 ‘재정 신학과 실천의 불일치’, ‘환경에 대한 청지기 정신’, ‘지역사회 개발 및 비즈니스 선교’, ‘동원 자금 마련 관행 및 믿음 재정’, ‘단기 선교, 후원, 의존성 문제’, ‘권력의 역동성과 구조적 불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선교사들의 큰 고민인 ‘현지교회 자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아프리카, 인도, 캄보디아 등지에서 재정 자립과 영적 재생산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 등도 소개된다.

크리스토퍼 J.H 라이트 박사는 솔선하고, 자원하고, 성심으로 드리는 모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역 모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와 기관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이 기뻐한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할 때는 지도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화중이 기뻐한다. 이것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린 일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말씀 앞에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5월 5일 공개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에 1,052명이 참가해 말씀을 나눴다. 사진은 <바이블킹> 본선 현장.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이 드디어 공개된다. 5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에서 볼 수 있다. ‘말씀 앞에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슬로건을 내건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에는 전 세대에서 1,052명이 참가했다.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에서

는 연령별 1차 예선, 2차 예선, 본선, 연령별 대표가 참여하는 결선 등 총 네 번의 경선을 거쳐 단 한 명의 ‘바이블킹’이 탄생한다. 단순한 말씀 암기가 아니다. 십자말풀이, 빈칸 채우기, OX 퀴즈, 젠가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 방식을 적용했다. CGNTV는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

을 총 12주 동안 방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초성 바이블킹’, ‘나도 바이블킹’, ‘함께 바이블킹’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CGNTV 홈페이지, 풍당 카카오톡 채널 포스트, CGNTV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인천온누리교회 국회 방문 기도

인천온누리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지난 4월 20일(수)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국회의원 정일영 장로(인천온누리교회) 의원실에서도 대한민국 가정, 질서, 생명, 미래 등을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 이날 국회 방문 기도에는 서경남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담당), 정일영 장로, 유수열 목사, 박성은 목사, 김종아 목사, 문장원 목사, 이종호 성도가 참여했다.

서경남牧사는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 꾸준히 기도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장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줄이고 서로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사회에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빙고 이웃사랑팀 ‘사랑의 상자’ 나눔

독거노인 50여 가정 및 지역주민센터에 배부

서빙고 이웃사랑팀에서 지난해 어버이주일과 성탄절에 이어 세 번째 ‘사랑의 상자’ 나눔을 한다. 5월 1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모여서 사랑의 상자 110여 개를 포장해서 교회 주변(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일대) 독거노인 50여 가정에 직접 배달한다. 60여 개는 서빙고동주민센터와 보광동주민센터에 전달해서 지역 이웃들에게 나눔 예정이다. 사랑의 상자에는 김치, 레토르트 국 종류, 캔, 삼계탕, 떡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도 전달한다. 이 뜻깊은 섬김에 브릿지33+공동체와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도 동참한다.

5월 화요성령집회 ‘행복의 비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5월 화요성령집회가 ‘행복의 비밀’을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5월 화요성령집회 ‘행복의 비밀’에서는 3일 김승수 목사 ‘나눔의 행

복’ (고후 8:1-9), 10일 최성민 목사 ‘섬김의 행복’ (막 10:35-45), 17일 김승수 목사 ‘용서의 행복’ (창 45:1-15), 24일 이서진 목사 ‘감사의 행복’ (골 3:15-17), 31일 김승수 목사 ‘사랑의 행복’ (요일 4:7-12)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 홍하영 기자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일요반, 수요반 온라인

창조신앙스쿨 일요반과 수요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요반은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요반은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온라인

(Zoom)으로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일요반 5월 7일, 수요반 5월 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문의: 010-4658-0987(일요반) 010-5185-3542(수요반)

/ 홍하영 기자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모집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일상생활훈련 등 교육 제공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이다. 일상생활 훈련, 요리 및 가사활동, 의사소통능력향상, 지역사회 이용훈련, 신체트레이닝, 직업기초훈련, 예술테마활동, 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한다.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용산구 백범로 329)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수탁운영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관련기사 14면). 문의: 02-6951-0329

제10기 ‘와이무슬림?’ 개강

5월 7일부터 6주간 온라인

제10기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7일(토)부터 6월 11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제강의는 유튜브로 시청하고, 조별 나눔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Zoom)으로 한다. 제10기 와이무슬림? 과정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김성운 교수, 김요셉 선교사, 이스테반 선교사 등이 강의한다. 무슬림 선교,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교재비). 문의: 010-5557-8924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수강신청 5월 27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27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성경연구학과 ‘시가서’

시가서(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 삶의 참된 지혜를 배우고, 영성을 수련하도록 돕는 ‘시가서’ 세미나가 5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시가서 개론, 히브리

시의 이해, 시편 해석 방법론 등을 주제로 석진성 교수(성결대 구약학)가 강의한다. 회비는 24만 원이다.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Zoom)으로 강의한다. 대상은 이혼한 남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다. 수강신청은 5월 2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4만 원.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2539-5665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피플퍼즐’, ‘행복의 실체와 그림자’, ‘남편 책임, 아내 책임’, ‘부부치유’, ‘성령이 충추는 가정’, ‘가계도’,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274-9350

■ 세례 간증



/ 부 윤재필, 모 엄소명, 자녀 윤예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9살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임신의 꿈을 접어갈 때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매일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얼마 뒤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축복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태명을 ‘축복이’로 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작은 점 같았던 축복이가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경이로움과 존귀함을 깨달았다. 정밀검진을 하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제사장의 기도(수 6:24~26)를 매일 밤 축복이에게 해주면서 태동을 느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축복이의 팔과 다리가 평균 주수보다 많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다. 큰 병원으로 옮겼다. 소견서에 적힌 병명은 초저체중아 출산이었다. 작은 희망을 품고 옮긴 병원에서 연골무형성증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양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부모로서 축복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내렸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만 되뇌며 겨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기쁨도 잠시, 임신중독으로 축복이가 1.8kg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왔다. 축복이는 21일 동안 신생아집 중치료실에 있었다. 엄마의 건강을 위해 아이를 희생시켰다는 죄책감과 언제 퇴원할지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 부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축복이가 우리 부부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청지기로서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다. 축복이가 퇴원하고 본격적인 육아를 하면서 그 믿음이 큰 힘이 되었다.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자지러지거나 우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 맡기니 평안을 회복시켜주셨다. 혼자하는 육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아로 힘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어느 선교사의 간증



/ 정봉진 선교사

CGNTV가 전해 준 물맷돌

우리 가족은 2016년 남수단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현지에 도착하고 4개월 뒤에 남수단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우리 가족은 남수단 남부와 국경을 접한 우간다로 내려와야만 했다. 갑작스럽게 난민 아닌 난민이 되어서 70여 일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아내는 같이 살던 현지인들에게 “너희도 도망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선교본부의 권유와 외교부에 권고로 남수단을 떠나 우간다로 내려오게 된 것을 무척 마음 아파했다. 거의 70일을 울면서 먹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다.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같이 남수단에서 내려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촌을 방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섬길 남수단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우간다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난민들이 흰 천막 하나 덮고 나뭇가지로 벽을 두른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 죽은 뼈들처럼 느껴졌다. 많은 죽은 뼈들이 생기 없이 널려 있었다. 사실 나도 그 뼈 중 하나였다. 수많은 난민

을 대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과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방향도 모르는 상황에 던져진 나도 마른 뼈였다. 그때 CGNTV가 공황에서 차량으로 여섯 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찾아왔다. 그리고 CGNTV 수신기를 달아줬다. 그 수신기를 통해서 아내와 나는 서서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을 회복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예언자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기 같았다. 골리앗 앞에 조약돌조차 갖고 있지 않은 다윗 같은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CGNTV를 통해서 물맷돌을 주셨다. 그 작은 물맷돌을 시작으로 우간다 남수단 난민사역을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과 협력하면서 많은 난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못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돼 있는지도 모르는 난민촌을 마스크 두 개 쓰고 다닐 때도 CGNTV를 통해서 은혜받고 재충전했다. 낙심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생기처럼 다가와 준 CGNTV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신동하, 송춘애 성도 부부(가정사역공동체)

우리 부부도 변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많은 갈등으로 서로를 괴롭혔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았다. 도저히 둘이서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받던 중에 지인의 권유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참가하게 되었다. 하가훈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마음의 준비가 덜되었던 나는 참석 자격 미달이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아내의 강권으로 참석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내의 강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때 하가훈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만큼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가훈에서 훈련받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다. 첫 주 ‘DISC 성격유형검사’는 많은 부분이 공감되었다. 부부관계란 사랑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부부가 긴 세월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더 많이 알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부부 관계를 위해 우리 부부도 가정훈련을 더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다.

사소한 것부터 상대에게 분노를 일으키며 충돌했던 우리 부부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위

축되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다른 부부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가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부부도 배우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려 한다. 하가훈이 끝나도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들을 귀히 여기며 세워가고자 한다.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우리 부부 사이에 잠시 드리워졌던 어둠의 시간이 물러갈 거라 믿는다. 앞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살 것이다.

하가훈 교육 중에도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다는 흔들림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때마다 우리 부부를 끝까지 붙들어주신 조장님 부부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한다.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인내하며 함께해준 사랑 하는 아내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경재연 성도(양천공동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청소년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자녀와 불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이하 파워임팩트)에 등록했다.

파워임팩트에서 강의를 듣다가 한 선교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는 선교사님과 자녀의 갈등이 회복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도 선교사님처럼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 맺기를 희망하면서 자녀에게 칭찬하기, 감사의 목록 적기 등의 과제를 실천했다. 그랬더니 예전과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아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했더니 아이의 얼굴에서 몽글몽글 미소가 피어올랐다. 자신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에 온화하고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지어졌다.

파워임팩트 추천 도서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와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으면서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훈육, 부모의 역할과 성장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예전

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망각하고 있던 중요한 사실들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었다.

8주 동안 교수님과 목사님들께서 알려주셨던 강의 내용과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차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낮이나 밤이나 굳게 잠겨있던 아이의 방문이 열리게 되었다. 엄마인 나로 인해 속상했던 자녀의 마음을 아이의 입술을 통해 직접 듣고, 집에서 유쾌하게 웃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변화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는 아이구나. 어른이 잘해야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아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지만 이따금 파워임팩트를 듣기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매일 자녀에게 칭찬하기와 감사 일기 쓰기를 지속하려고 한다. 행복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파워임팩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활에서 잘 적용할 것이다. 아이와 함께 할 인생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한다.

신앙에세이

데오 볼렌티(Deo Volente), 하나님의 뜻



김소리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

어느 성도님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배워서 집에서 흥얼거리고 찬양했다. 그런데 저녁

에 어떤 일로 부모님께 혼이 조금 났고, 시무룩해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바꿔 불렀다고 한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뒤돌아 설 뻔 했대네! ♪”

나도 이 찬양을 부르며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질문한다.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 중에 내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약 4:15).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의 뜻이면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야고보가 권면한 ‘주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는 의미이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라틴어 ‘D.V’라고 썼다고 한다. 이것은 ‘Deo Volente’(데오 볼렌티)라는 라틴어의 약자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행 18:21),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고전 16:7).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머물기도 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셨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만 걸어가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가시에 찢릴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빛이 비친다면 안심할 수 있다. 빛이 비치면 웅덩이나 장애물이 보이면 멈추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시 119:105).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겠다는 고백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다.

수원온누리교회는 지금 말씀과 기도의 삶에 어느 때보다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과 함께함이 큰 축복이며 은혜이다.

권사칼럼

이제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선진 권사
(남양주온누리교회
권사회 회장)

지난 4월 13일은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었다. 새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새 예배당이 세워질 건축부지에서 드리는 예배는 새 비전을 향한 기대와 감사로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족장들이 돌아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나이 지긋한 자들은 목 놓아 울었고, 많은 사람이 멀리까지 들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소리 질렀다는 에스라서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깊이 일어났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새 예배당 건축을 물리적인 예배당 건물 확장 이전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다. 남양주온누리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이해영 담임목사님은 창립 15주년을 계기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재건(창 15:16~17)’을 선포하셨다. 그때부터 많은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예배당 이전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지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다. 하지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느 9:19)”라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남양주시 다산동에 예배당 부지가 정해졌다.

작년에는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라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와 성도 개인

의 삶의 재건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동안 예배당 이전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심하게 생각해왔던 지체들이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각 개인이 교회 됨을 기억하는 뜨거운 기도가 예배 때마다 울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남양주온누리교회 기공예배를 허락하셨다.

남양주온누리교회의 새 예배당이 지어질 다산동 건축부지는 신도시다. 주변에 행정·법조타운과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분양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바로 옆 블록에는 남양주시에서 가장 큰 정약용 도서관이 있다. 예배당이 완성되면 차세대들이 몰려오고, 육아에 지친 30~40대 젊은 부모들이 말씀으로 삶을 재건하기 위해 와서 온누리교회의 많은 영적 훈련들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주중에도 예배당 문이 늘 열려 있어 법조타운의 신우회와 차세대, 탈북민, 다문화, 시니어 사역이 자유롭게 진행될 것을 그려본다.

그동안 남양주온누리교회가 꿈꾸던 많은 일이 2년 후면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온누리교회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예배의 회복과 삶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상실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 내 관계의 무너짐, 육체의 약함이 예배당 완성과 동시에 회복되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비전을 꿈꾼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로운 감정과 갈등들이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 얽힌 마음들이 이제 다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남양주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사역칼럼



김종명 팀장
(오병이어 사역,
강서공동체)

오병이어 사역은 벅세다 들녘에서 벌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소외된 어르신들께 영원한 주님의 양식을 소개하고 먹이는 사역이다. 오병이어 사역 대상자들은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어르신들이

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제현금 1천 원을 받기 위해 오실 만큼 그 어르신들의 삶이 어렵다. 그 어르신 중에는 한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2019년 어르신들께 영원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싶은 성도들이 모였다. 그렇게 어르신 32명과 함께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했다.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

자’고 결심했다. 어르신들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어르신 서른 두분께 예수님과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간식과 식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때는 온누리교회 정식 사역팀이 아니었기에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사역비를 충당했다. 적금을 해지해서 2백여만 원을 헌금하신 권사님도 계셨고, 가족들이 돈을 모아 헌금한 성도님도 계셨다. 몇 달 후에 진행된 두 번째 오병이어 사역에는 어르신 100여 분이 참석했다. 따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앞을 알음알음 주변 어르신들께 소개를 해주셨다. 그다음에는 어르신 160여 분이 넘게 찾아왔다. 공간이 부족해서 어르신 스무 분은 손에 간식을 쥐여 드리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는 점심 한 끼를 위해 먼길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 드리는 일은 정말 기뻐했다.

오병이어 사역이 다시 시작된다!

오병이어 사역을 하다 보면 해프닝이 많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천천히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씀드려야 한다.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실수를 하시기도 했다. 조금은 고된 사역이지만 은혜만큼은 풍성하다. 어르신 80%가 예수님을 영접하신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역 팀원들에게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데 행복하다”, “재미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신다. 세족식에서 받은 은혜도 잊을 수 없다. 어르신들께서 “무슨 나 같은 사람 발을 씻겨주냐”며 만류하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었던 지난 2년 동안 오병이어사역팀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제자양육’과 ‘복음심방’이라는 사역을 했다. 어르신들의 집 근처 공원 등지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는데 한 어르신은 몇주 전부터 양육자를 껴안고 한 어르신은 몇주 전부터 양

육을 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신다고 한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데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오병이어 사역팀원이 고마우셨던 모양이다. 복음심방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상과 신앙을 나누는 사역이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통화로 어르신들을 심방했다. 오병이어 사역팀원이 30여 명인데 모두 사랑을 가득 담아 맞춤형 일대일제자양육과 복음심방을 했다.

5월 셋째 주부터 오병이어 사역을 다시 시작한다. 오병이어 사역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이 동네 노인정에서 직접 홍보를 하셨다고 한다. 6월에는 다른 교회의 요청으로 오병이어 대외사역이 시작된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주로 낮에 만날 수 있다.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한 영혼을 살리는 오병이어 사역에 많은 성도가 동참하기를 부탁한다.

문의: 010-7636-6305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둘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 둘다. 주께서 내 오른 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뒤흔듯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8-9절).

다윗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능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나아가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언제든지 쉬지 않고 귀 기울여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 주시니”(7절).

나의 하루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닐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과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지 돌아쳐보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

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10-11절).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 맴돕니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수년 동안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관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즐거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요 10:28-29).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육신을 덧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으로 새로운 육신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사회학자 엘렌 렌어가 ‘마음의 시계’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BS에서 ‘황혼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수십 년 전 환경으로 돌아가게 해서 몸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합숙소에 입소

하기 전에 건강을 점검하고, 일정 기간 몇십 년 전 환경으로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강을 점검했더니 다들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최면입니다. 가짜입니다. 입소하기 전에는 혼자 계단을 못 오르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길을 때 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다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시계가 몸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실 과거를 돌이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돌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환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리는 것은 가짜지만,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스스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을 앞으로 당겨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 우리에게 나누어줄 즐거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면 십자가와 같은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요,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엄제홍 센터장
(용산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용산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소재)가 지난 1월 27일 개관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올해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중복장애, 고도비만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교실(5개), 특별활동실, 다목적실, 개별활동실, 심리안정실, 조리활동실, 상담실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췄다.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주요 과업들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상생활훈련, 요리 및 가사활동, 의사소통능력향상, 지역사회이용훈련, 신체트레

이닝, 직업기초훈련, 긍정적행동지원 등의 필수과목과 예술테마활동, 정보화 교육 등의 선택과목이 있다. 현재 이용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청년부터 평생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민음 씨(가명, 37세) 어머니는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학교’라고 부른다.

“가정 상황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는데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에는 감정조절이 어려워서 때때로 가족과 다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교육해주셔서 가정에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교류할 사람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고, 우울감이 커서 걱정했는데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센터 최고령 이용자인 김소망 씨(가명, 59세)

는 교사들의 환영과 안부 인사가 낯설고 쑥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농담도 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하원할 때 배웅도 나갈 정도로 잘 적응했다. 김소망 씨는 한글과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다. 그의 보호자는 “센터를 이용하면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지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했다.

센터에는 18년 이상 특수교육에 몸담아 온 특수교사, 장애인사역에 대한 비전으로 교사가 된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헌신하고 있다. 소명과 비전으로 일하고 있지만 간혹 일부 이용자의 돌발행동에 노출되기도 한다. A 선생님은 이용자의 돌발행동을 중재하다가 손목이 꺾여 2주 이상 깁스를 했고, B 선생님은 얼굴과 목, 손 등을 손톱으로 긁혀 치료를 받기도 했다. 교사들은 이용자의 도전적이고 돌발행동을 문제행동으로만 보지 않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여긴다.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파악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처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들의 일상 생활능력과 사회성 유지 또는 향상은 보호자들의 큰 고충이다.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우울이나 퇴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용산구에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평생교육센터가 생겼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교육과 돌봄 부담을 경감해주고,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송영범 장로님(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주요 과업들을 한 가지라도 더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의미 있는 하루, 한 달, 일 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심있는 대상자(성인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들이 있다면 센터로 문의하면 좋겠다. 문의: 02-6951-0329

행복한 배움터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RUN fondant

달려라풍당
후원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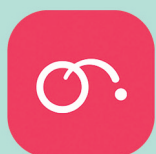
기간 5월 7일 ~ 6월 6일 (31일간)
접수 4월 18일(월) ~ 5월 22일(주일)
문의 02-796-2243



달려라풍당
홈페이지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
주일학교 예배 지원에 함께해 주세요!

■ 신청방법 1



STEP. 1
‘체리’앱 다운로드



STEP. 2
‘CGNTV’ 단체가입



STEP. 3
‘달려라풍당’ 참가신청

■ 신청방법 2



NAVER
‘네이버폼’으로 신청하기

가족, 공동체와 함께 ‘스페셜 라이딩’에 참여하세요!

5월 7일 스페셜라이딩 구간

서빙고 ↔ 양재 (편도 17.6km)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세요!

캠퍼스	행사시간	장소
서빙고	5/7(토) 오전 10시 20분	교회 공원
양재	5/7(토) 오전 10시 40분	교회 야외주차장
강동	5/14(토) 오후 1시	올림픽공원
양지	5/14(토) 오후 2시	설봉공원
수원	5/21(토) 오후 4시	신대호수공원
평택	5/21(토) 오전 10시	내리공원
부천	5/21(토) 오전 10시	월미산
	5/28(토) 오전 10시	아라뱃길
인천	5/28(토) 오전 11시	송도센트럴파크